

2018 신년메세지

하늘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확장

[예레미야 33:1-3]

- 1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 2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 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1. 이제 일어나야 한다.

(1) 예레미야의 상황

예레미야가 있었던 유다시대는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암흑과 같은 시기였다. 남유다의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 암흑기에 활동한 선지자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속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왕 시드기야의 시대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라고 외친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진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로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이다. 그의 외침은 공허한 외침과 같았다. 오히려 절망적이었다. 그 외침으로 인해 오히려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고 만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다.

[예레미야 33:1]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2) 회복의 예언

[예레미야 33:2-3]

- 2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 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소망과 회복에 대한 언약을 주신다. 절망중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은 놀라운 언약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

2. 2018년

모든 영역에 소망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와같은 상황에서 비전을 보이신다. 절망에 대한 해석, 진동에 대한 해석을 알아야 한다. 영원한 절망, 영원한 진동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 내려갔으면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이 역사이다. 영원한 바닥이란 없다. 반대로, 올라갔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것이 섭리이다. 예레미야가 있었던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오히려 소망의 비전을 선포하신다.

(1) 앞으로의 10년을 주도할 새로운 플랫폼

이제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다. 지금의 플랫폼으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시대가 변했다. 세대가 변했다. 리더십이 변했다. 플랫폼이 변한다는 것은 예전의 플랫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옛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새 술'을 담을 수 없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플랫폼으로 사용되었다면,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셔서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2018년은 향후 10년을 달릴 하나님의 비전이 조이풀에 온전히 정착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는 무엇인가? 변하면 안되는 것, 흔들리면 안되는 것이다. 하나 뿐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비전’이다. 하나님은 급변하는 세상속에서, 향후 10년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을 절망속에서 찾으시고 교회를 찾으신다. 그래서 2017년에 진동이 있었던 것이다. 진동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흔들시는 진동 앞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무너지고, 온전히 귀한 것이 새롭게 정렬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동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향후 10년을 달릴 수 있는 견고한 플랫폼을 교회를 통해서 주실 것이다.

(2)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붙어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눈, 코, 귀의 역할로 머리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당신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 교회는 자아성찰하는 사찰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적 플랫폼이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비전을 내가 마음에 품고 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초 위에 당신의 뜻을 세우실 것이며, 그 사람은 교회의 확장과 함께 실제 자신의 영역의 확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3)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함을 말한다. 누가 부르짖을 수 있는가? 간절한 목적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부르짖을 때 실제 회복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예의를 차리고 격식을 차리는 상태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상태이다. 진짜 회복과 치유와 돌파가 필요한 상태이다.

* ‘혼적인 기독교, 자아성찰적 기독교를 경계하라’

이제 우리는 이 절망의 시대를 통해서 자아성찰적 기독교, 지성주의에 빠진 기독교, 검증과 이성과 과학적 증명에 목이 묶여 버린 기독교의 실태를 보았다. 진리가 이념에 먹히고 사상에 먹힌 형태를 보았다. 교회가 혁명의 장소, 인권을 대변하는 소굴이 되어버린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성경공부를 수료한 제자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없는지, 머리만 커진 제자가 되었는지를 목도하고 있다. 머리는 커졌지만 주변에 어려운 이웃 하나를 섬기지 못하는 기독교를 보았다. 교회가 내 마음의 평안만을 달래주는 ‘사찰’과 같은 곳이 되어버린 현장을 보았다. 이제 무너져야 한다. 새롭게 회복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오는 회복이 있어야 한다. 능력이 부어져야 한다.

이런 절망의 상황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다. 이 상황을 해결하는 길은,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영적인 차원이 임하는 것이다. 영적인 차원이 임해야 혼과 육이 정렬이 된다. 육이 혼을, 혼이 영을 정렬할 수 없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과 치유와 돌파를 약속하신다.

a) 치료의 역사 (6절)

[예레미야 33:6]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낮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b)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역사 (7절)

[예레미야 33:7]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c)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 (8절)

[예레미야 33:8]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d) 회복의 언약 - 진정한 확장 (9-10절)

[예레미야 33:9-10]

9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푸는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푸는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엄청난 회복의 역사(대추수)를 이루기 위해, 2018년 확장의 플랫폼을 만드는 원년이 되게 할 것이다.

3. 확장의 플랫폼

(1) 부르짖는 기도 - '응답을 경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머리로만 믿으면 알고있는 일에 확신이 없다. 그러나 알고있는 말씀이 기도와 함께 병행이 될 때,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모이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는 기도가 1년 동안 나의 영적 체질이 되게 하라. 그리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라.

(2) 정체성과 혁신의 두 기둥 - 크고 비밀한 일이 보인다.

6절 후반부터 나타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았다. 이 일을 위해서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플랫폼은 두 기둥을 통해 세워질 것이다.

"*imagination and innovation*"

* '형상' - 정체성이다. 정체성이 분명한 자. 아들의 영을 가진 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의 싸움(형상)이 될 것이다. 이제 시대는 글이 아니라 사진 한 장이 세계를 바꾸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실재화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증거들이 일어나야 한다.

* '혁신' - 예수님 자체가 혁신이셨다. 세상은 한 사람의 혁신가에 의해서 변화된다. 이제 교회는 개혁을 넘어서 혁신이 필요하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 과감하게 과거의 구습을 정리하고,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3) 안디옥의 플랫폼으로 확장하라.

이제 학생 선교사, 중장기 선교사가 배출되기 일보직전에 있다. 조이풀은 항공 모함이다. 전 세계 최고의 전투기들이 뜨고 내리는 베틀쉽이다. 2018년 새로운 조이풀을 진수 시키는 원년이 되자. 할렐루야.